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¹⁾

Economic Activity and Economic Status of Older Persons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의 최근 10년간 변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2011~2020년 동안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노인의 일자리 질-종사상지위, 일자리 만족도, 임금 수준 등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가구 내에서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노인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노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공헌 등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이후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복지 관련 급여를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

적 확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향상 등을 통해 노인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율과 빈곤율이 1위이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5.3%(2020년, 65세 이상 기준)로 OECD 평균 15.5%의 2배이며,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8장과 제9장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66세 이상 기준)로 OECD 평균 14%의 3배 수준이다(OECD data).²⁾ 그러나 이러한 통계 수치는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의 변화 양상을 자세하게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면밀한 실태 분석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와 경제 수준을 살펴본 후, 이를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약 10년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³⁾ 그러나 노인의 경제 생활상 관련 조사 문항은 2011년부터 크게 변경되어 시계열적인 비교는 2011년부터 가능하다(황남희 외, 2018). 다만, 일부 문항은 사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2014년 혹은 2017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재정 지원 일자리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실태를 분

석한다. 다음으로, 노인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노인 가구의 소득 규모와 소득 구성을 살펴본 후, 가구소득에서 노인 본인의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지위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의 통계 분석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2. 노인의 경제활동

가. 현재 경제활동 특성

노인의 36.9%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9.5%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즉 노인의 86.4%(36.9%+49.5%)는 현재 혹은 과거에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있으며, 13.6%만이 평생 경제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⁴⁾ 읍·면부에 거주하는 남자, 전기노인은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6.8%로 동부 거주 노인의 33.7%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46.9%)이 여자 노인(29.3%)보다 참여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서 65~69세가 55.1%로 85세 이상 10.6%의 5배 수준이다. 가

2) <https://data.oecd.org/>에서 국가별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021. 8. 12. 검색).

3)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 2021. 6. 30.).

4) 이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조사에 응답한 노인 기준이다.

표 1. 2020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구분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 경험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전체	36.9	49.5	13.6	100.0	
지역	동부	33.7	51.4	14.9	100.0
	읍·면부	46.8	43.7	9.4	100.0
	남자	46.9	51.3	1.8	100.0
성별	여자	29.3	48.2	22.5	100.0
	65~69세	55.1	34.9	10	100.0
연령	70~74세	37.2	50.4	12.4	100.0
	75~79세	28.8	57	14.2	100.0
	80~84세	19.1	63.4	17.4	100.0
	85세 이상	10.6	63.5	25.9	100.0
	노인 독거	33.5	49.3	17.1	100.0
가구 형태	노인 부부	41.4	48.2	10.4	100.0
	자녀 동거	27.5	53.6	19	100.0
	기타	30.9	49.6	19.5	100.0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9 (표 9-1)을 재구성함.

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41.4%)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 독거 가구(33.5%), 기타 가구(30.9%), 자녀 동거 가구(27.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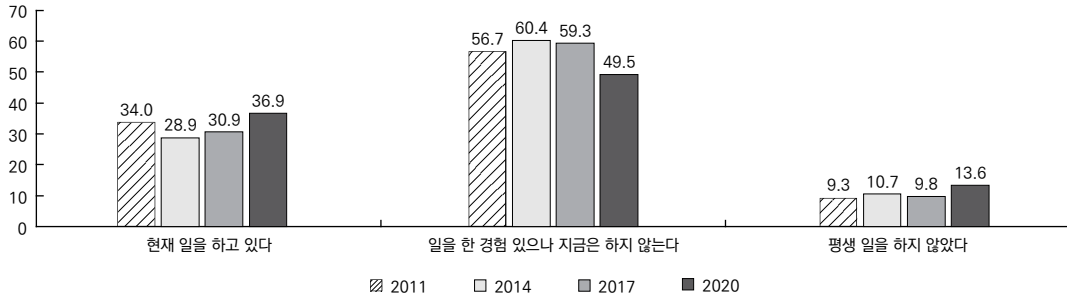
한편 2011~2020년의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은 2011년 34.0%에서 2017년 30.9%로 감소한 후, 2020년 36.9%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2011년 56.7%에서 2017년 59.3%로 증가한 후, 2020년 49.5%로 감소하였다. 전 생애에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노인의 비율은 2011년 9.3%에서 2017년 9.8%, 2020

년 13.6%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즉 최근 10년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에서 전 생애 경제활동 참여 경험의 양극화가 확인된다. 평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과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인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 생애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더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하여 나타난 결과로 유추된다.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계비 마련(73.9%)이나 용돈 마련(7.9%) 등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다. 그 외 비경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건강 유지(8.3%), 시간

그림 1.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2011~2020년)

(단위: %)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근,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9 (표 II-8-1)을 재구성함.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71 (표 10-1)을 재구성함.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9 (표 11-1)을 재구성함.
 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9 (표 9-1)을 재구성함.

보내기(3.9%), 능력 발휘(3.6%) 등이다. 인구가
 화학적 특성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의 차
 이는 크지 않지만,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79.9%)

이 동부 노인(71.3%)에 비해,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독거 가구(78.2%)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2. 2020년 경제활동 참여 이유

(단위: %)

구분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기타	계
전체	73.9	7.9	8.3	1.7	3.9	3.6	0.7	100.0
지역	동부	71.3	7.8	9.9	2.1	3.9	0.6	100.0
	읍·면부	79.9	8.1	4.8	0.9	4.1	0.6	100.0
성별	남자	75.1	6	9.3	1.5	3.1	0.6	100.0
	여자	72.5	10.3	7.2	2	4.9	0.6	100.0
연령	65~69세	73.4	6.3	9.7	1.8	3.4	0.5	100.0
	70~74세	72.5	9.5	7.9	1.8	4.3	0.6	100.0
	75~79세	78.5	9.8	4.2	1.7	4	1.3	100.0
	80~84세	74.9	8.5	7.3	1.2	5.9	1.1	100.0
	85세 이상	59.4	10.1	21.7	1.4	5.8	0	100.0
가구 형태	노인 독거	78.2	7.6	6.1	2.5	3.4	0.3	100.0
	노인 부부	73	7.5	8.9	1.7	4.3	0.7	100.0
	자녀 동거	73.6	9.8	8.3	0.7	2.7	4.1	100.0
	기타	69.8	9.4	9.4	1.9	5.7	3.8	100.0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6 (표 9-11)을 재구성함.

2011~202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이유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계비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2011년 79.4% → 2020년 73.9%) 건강 유지, 능력 발휘 등 비경제적 이유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같은 기간 각각 5.6%, 1.3% → 8.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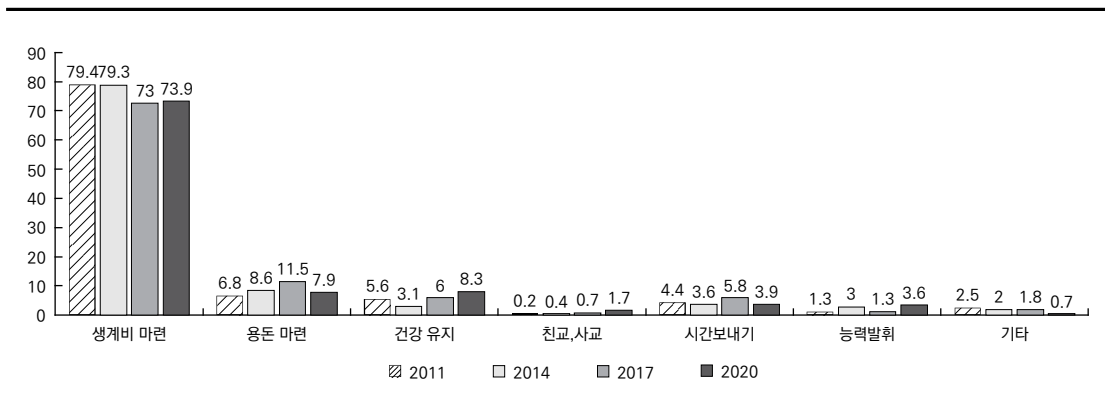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노인의 경제활동은 질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를 질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종사상지위, 현 직업 종사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사상지위는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가 확인된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 비율

이 2011년 3.3%에서 2020년 18.4%로 크게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등 기타 비율은 같은 기간 29.7%에서 7.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 역시 2011년 18.7%에서 2020년 36.4%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종사상지위의 최근 변화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자리의 양극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최근 3년(2017~2020년)간 더욱 급격하게 나타나서 상용근로자는 약 13%포인트 증가, 임시·일용직근로자는 약 6%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더욱 정밀한 연구를 통해 파악해야겠지만,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증가는 점진적인 은퇴 과정에 있는 노인들이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시·

그림 2. 경제활동 참여 이유의 변화(2011~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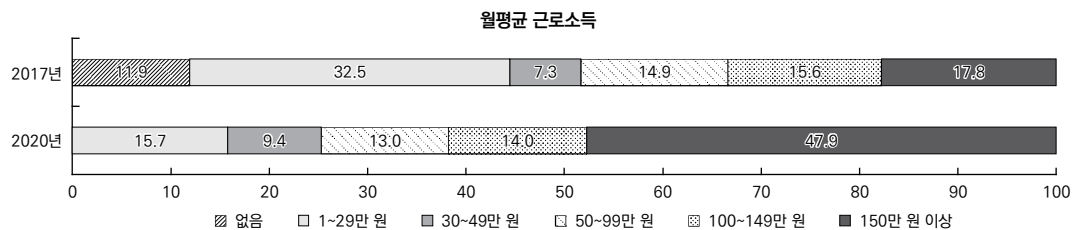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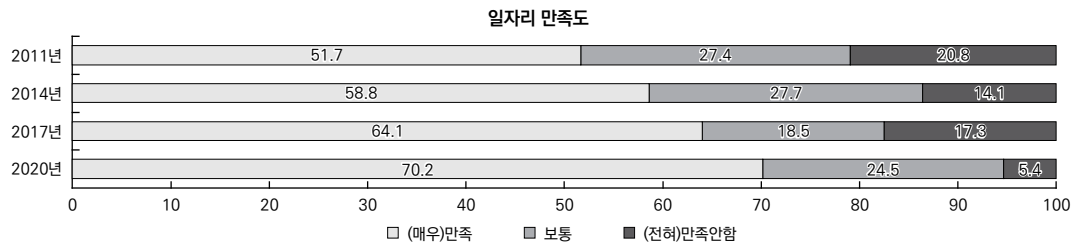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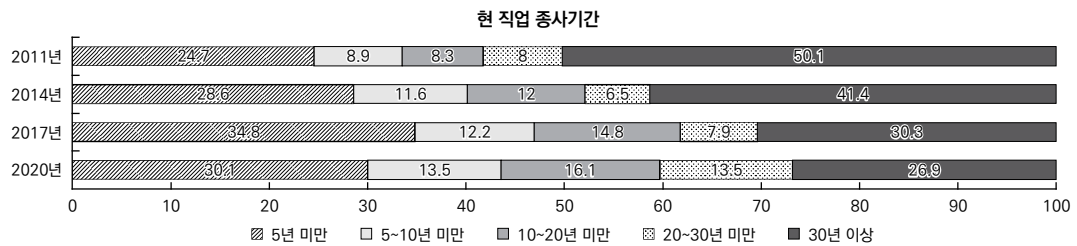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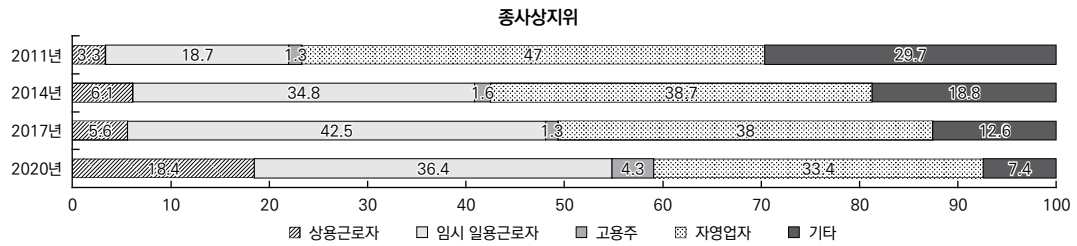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57 (표 II-8-5)을 재구성함.
-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88 (표 10-11)을 재구성함.
-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76 (표 11-11)을 재구성함.
- 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6 (표 9-11)을 재구성함.

그림 3. 일자리 특성 변화(2011~2020년)

(단위: %)



주: 1)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2)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7년부터 조사됨.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53. <표 II-8-3>, p. 355. <표 II-8-4>, p. 359. <표 II-8-6>을 재구성함.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신우덕, 오미애...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77. <표 10-4>, p. 387. <표 10-10>, p. 390. <표 10-12>를 재구성함.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5. <표 11-4>, p. 473. <표 11-9>, p. 475. <표 11-10>, p. 478. <표 11-12>를 재구성함.

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15. <표 9-4>, p. 423. <표 9-9>, p. 425. <표 9-10>, p. 428. <표 9-12>를 재구성함.

일용직근로자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 직업 종사 기간은 30년 이상이 2011년 50.1%에서 2020년 26.9%로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5년 미만은 같은 기간 24.7%에서 30.1%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노인의 은퇴가 한 직업에서 오래 종사한 후 완전히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은퇴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0년간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는 향상되어, 일자리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 포함) 비율이 2011년 51.7%에서 2020년 70.2%로 18.5%포인트 증가하였다.

최근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비율이 2017년 17.8%에서 2020년 47.9%로 약 30%포인트 증가하였다.

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노인의 7.9%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이보다 많은 22.4%의 노인은 향후 참여를 희망하였다.

표 3.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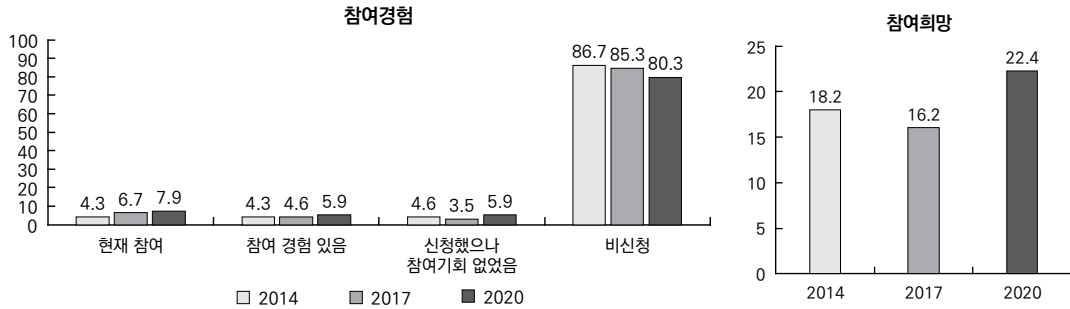
구분		현재 참여율	참여 희망율
전체		7.9	22.4
지역	동부	7.1	22.5
	읍·면부	10.6	21.9
성별	남자	7.3	23.1
	여자	8.5	21.8
연령	65~69세	4.0	20.8
	70~74세	7.7	24.1
	75~79세	13.1	28.3
	80~84세	9.7	18.3
	85세 이상	6.7	11.6
가구 형태	노인 독거	11.4	23.8
	노인 부부	7.6	21.9
	자녀 동거	6.0	22.1
	기타	3.4	24.1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9 (표 9-25), p. 453 (표 9-28)을 재구성함.

그림 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 희망 변화(2014~2020년)

(단위: %)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4. <표 10-34>, p. 427. <표 10-36>을 재구성함.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2. <표 11-27>, p. 505. <표 11-29>를 재구성함.
 3)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9. <표 9-25>, p. 453. <표 9-28>을 재구성함.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재 참여율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10.6%)이 동부 노인(7.1%)보다 참여율이 높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8.5%)이 남자 노인(7.3%)보다 참여율이 조금 높다. 연령별로는 75~79세의 현재 참여율이 13.1%로 가장 높은 편이며, 65~69세는 4.0%로 가장 낮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독거 가구(11.4%)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현재 참여율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참여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소득 수준(기초연금 수급자)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여자 독거노인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한편 2014~2020년 기간 동안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참여율이 2014년 4.3%에서 2020년 7.9%로 증가하였으며, 과거 참여 경험자 비율도 같은 기간 4.3%에서 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신청자 비율 감소로 이어진다. 비신청자 비율이 2014년 86.7%에서 80.3%로 감소하였다.

3. 노인의 경제 수준

가. 가구총소득 및 소득 구성

노인 가구의 2019년 기준 연간 총소득은 3026만 5000원이며, 소득 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로소득

이 51.0%(1543만 3000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22.3%(675만 6000원), 재산소득 15.0%(452만 5000원), 사적이전소득 11.7%(353만 7000원) 등의 순이다.⁵⁾

조사에 응답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가구총소득을 비교 분석하면, 노인 중 소득취약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자, 독거 후기노인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4. 2020년 가구총소득 규모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구분		연 총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전체		3026.5 (100.0)	1543.3 (51.0)	452.5 (15.0)	353.7 (11.7)	675.6 (22.3)	1.4 (0.0)
지역	동부	3295.6 (100.0)	1683.1 (51.1)	555.4 (16.9)	364.0 (11.0)	692.9 (21.0)	0.2 (0.0)
	읍·면부	2184.6 (100.0)	1105.7 (50.6)	131.0 (6.0)	321.3 (14.7)	621.6 (28.5)	5.0 (0.2)
성별	남자	3158.0 (100.0)	1586.4 (50.2)	481.3 (15.2)	345.6 (10.9)	744.7 (23.6)	0.0 (0.0)
	여자	2927.3 (100.0)	1510.7 (51.6)	430.9 (14.7)	359.8 (12.3)	623.4 (21.3)	2.5 (0.1)
연령	65~69세	3886.2 (100.0)	2454.1 (63.1)	492.8 (12.7)	316.1 (8.1)	619.1 (15.9)	4.1 (0.1)
	70~74세	2967.3 (100.0)	1212.2 (40.9)	658.5 (22.2)	338.5 (11.4)	758.1 (25.5)	0.0 (0.0)
	75~79세	2568.5 (100.0)	1042.0 (40.6)	430.0 (16.7)	370.7 (14.4)	725.7 (28.3)	0.1 (0.0)
	80~84세	2114.3 (100.0)	891.1 (42.1)	185.0 (8.7)	410.1 (19.4)	628.1 (29.7)	0.0 (0.0)
	85세 이상	2496.2 (100.0)	1294.3 (51.9)	188.3 (7.5)	414.3 (16.6)	599.3 (24.0)	0.0 (0.0)
가구 형태	노인 독거	1443.9 (100.0)	438.4 (30.4)	266.1 (18.4)	267.1 (18.5)	466.2 (32.3)	6.1 (0.4)
	노인 부부	2897.8 (100.0)	1289.0 (44.5)	461.3 (15.9)	358.9 (12.4)	788.6 (27.2)	0.0 (0.0)
	자녀 동거	4964.9 (100.0)	3404.8 (68.6)	621.1 (12.5)	399.8 (8.1)	538.4 (10.8)	0.8 (0.0)
	기타	2992.8 (100.0)	1175.9 (39.3)	337.0 (11.3)	632.6 (21.1)	846.1 (28.3)	1.2 (0.0)

주: 1) 2019년 기준이며, 근로소득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함.

2)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71-372. <표 8-2>를 재구성함.

5) 소득 조사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이하 동일), 가구총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의 가구총소득이 3295만 6000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2184만 6000원보다 더 많고, 동부의 경우 재산소득 비율이 16.9%로 읍·면부의 6.0%보다 10.9%포인트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3158만 원)이 여자 노인(2927만 3000원)보다 230만 7000원 소득이 더 많지만, 소득 항목별 구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남자 노인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각각 15.2%, 23.6%)이 여자 노인(각각 14.7%, 21.3%)보다 조금 더 많다. 반면 여자 노인은 사적이전소득이 12.3%로 남자 노인의 10.9%보다 1.4%포인트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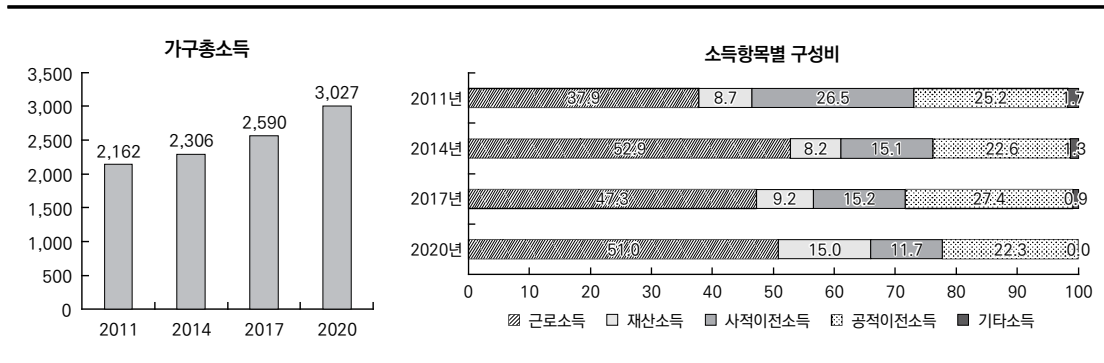
연령별 가구총소득은 85세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낮고, 소득 구성 항목 중 근로소득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 85세 이상 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가구총소득과 근로소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가구 형태별 가구총소득은 노인 독거 가구가 1443만 9000원으로 가장 적고, 그다음으로 노인 부부 가구 2897만 8000원, 기타 가구 2992만 8000원, 자녀 동거 가구 4964만 9000원 순으로 많아진다. 또한 소득 구성 항목에서 노인 독거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공적이전소득(32.3%)과 재산소득(18.4%)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 동거 가구는 근로소득(68.6%)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가구총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2162만 원에서 2017년 2590만 원, 2020년 3027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⁶⁾ 향

그림 5. 가구총소득과 항목별 구성비 추이(2011~2020년)

(단위: 만 원, %)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1. <표 II-5-4>를 재구성함.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54-256. <표 7-2>를 재구성함.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21-422. <표 10-2>를 재구성함.
 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71-372. <표 8-2>를 재구성함.

6) 명목소득 기준이다(이하 동일).

목별 구성 비율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와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2011년 37.9%에서 2014년 52.9%로 증가, 2017년 47.3%로 감소한 후 2020년 51.0%로 다시 증가하였다. 즉 근로소득은 2011~2020년 동안 13.1%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및 임금 수준 상승이 노인 가구의 경제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사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14.8%포인트(2011년 26.5%에서 2020년 11.7%) 감소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분석 기간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이나 기초연금제도의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10년간 노인 가구의 소득 항목 중 가장 극적인 변화는 재산소득에서 확인된다. 가구총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는 8.7%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15.0%로 6.3%포인트 증가하였다. 재산소득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이나 임대수입 등과 사적연금소득을 포함한다.

나. 가구총소득 중 노인 개인소득의 비율

노인 가구의 총소득은 노인뿐 아니라 비노인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가구총소득이 곧 노인의 경제 수준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의 78.2%(노인 독거 가구 19.8%,

노인 부부 가구 58.4%)로, 노인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가구총소득에서 노인 본인의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다. 여기서 노인의 개인소득은 조사에 응답한 노인 본인의 소득을 의미한다.

노인 개인의 소득 비율이 가구총소득의 80~100%인 경우가 3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구소득 40~60%가 22.6%를 차지한다. 가구소득에서 노인의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59.1%이다. 지역별 평균 비율은 읍·면부 노인(62.3%)이 동부 노인(58.1%)보다 높고, 성별로는 남자 노인(66.7%)이 여자 노인(53.4%)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65~69세의 경우 가구총소득에서 노인의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8.1%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80~84세는 60.1%이며, 85세 이상은 58.0%로 낮은 역U자형 관계를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개인의 경제적 자립성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구총소득에서 노인의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 독거 가구가 평균 94.7%로 가장 높고 자녀 동거 가구는 34.8%로 가장 낮다. 노인 독거 가구의 90.0%는 본인의 소득이 가구총소득의 80~100%를 차지하며, 가구소득의 0~4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도 2.7%이다. 노인 독거 가구에서 노인 개인의 소득이 가구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닌 것은, 가구 형태의 조사 시점(2020년)과 소득 산출의 기준 시점(2019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거 가구는 노인 스스로 소득을 충

표 5. 2020년 가구총소득 중 노인의 개인소득 비율

(단위: %)

구분	계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	평균 비율	
		20% 미만	20~40%	40~60%	60~80%	80~100%		
전체	100.0	17.1	13.0	22.6	11.7	35.6	59.1	
지역	동부	100.0	18.5	13.2	21.9	11.4	35.0	58.1
	읍·면부	100.0	12.5	12.4	25.0	12.7	37.4	62.3
성별	남자	100.0	7.0	8.6	26.5	18.1	39.8	66.7
	여자	100.0	24.7	16.3	19.7	6.9	32.4	53.4
연령	65~69세	100.0	18.5	13.7	20.8	10.5	36.4	58.1
	70~74세	100.0	15.4	14.2	24.2	13.2	33.0	58.6
	75~79세	100.0	14.1	11.6	25.2	13.7	35.4	60.8
	80~84세	100.0	16.7	13.5	22.7	10.8	36.3	60.1
	85세 이상	100.0	26.5	9.6	16.9	7.9	39.1	58.0
가구 형태	노인 독거	100.0	0.7	2.0	4.0	3.3	90.0	94.7
	노인 부부	100.0	13.0	13.9	31.8	16.2	25.1	55.6
	자녀 동거	100.0	44.4	20.8	15.4	6.6	12.8	34.8
	기타	100.0	24.2	17.9	11.6	16.7	29.6	51.6

주: 1) 소득은 2019년, 가구 형태는 2020년 기준이므로 노인 독거 가구의 노인 개인소득 비율이 100%가 아님.

2)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79. <표 8-5>를 재구성함.

당하고, 자녀 동거 가구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황남희, 2018).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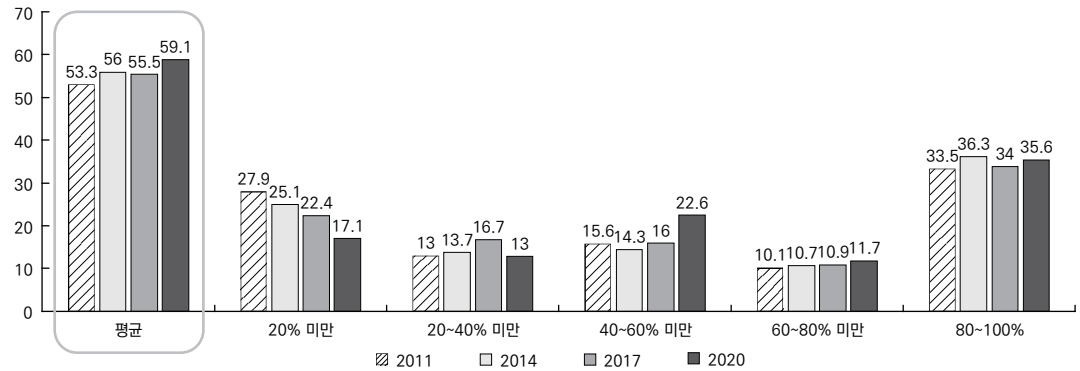
한편 가구총소득 중 노인의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53.3%에서 2014년 56.0%, 2017년 55.5%, 2020년 59.1%로 증가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총소득의 80~100%인 경우가 2011년 33.5%에서 2017년 35.6%로 2.1%포인트 증가했고, 가구총소득의 20% 미만

인 경우는 같은 기간 27.9%에서 17.1%로 10.8%포인트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 구성의 변화, 즉 자녀 동거 비율 감소와 관련 있어 보인다. 자녀 동거 가구는 2011년 27.3%에서 2020년 20.1%로 약 7% 감소한 반면, 노인 부부 가구는 같은 기간 48.5%에서 58.4%로 약 10%포인트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7) 앞에서 가구 형태별 소득 구성 항목을 살펴볼 때, 자녀 동거 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8.6%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자녀 동거 가구는 자녀의 근로소득이 가구총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가구소득 중 노인의 개인소득 비율 추이(2011~2020년)

(단위: %)



주: 반올림 등으로 세부 항목의 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7. <표 II-5-12>를 재구성함.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1. <표 7-5>를 재구성함.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9. <표 10-5>를 재구성함.
 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79. <표 8-5>를 재구성함.

4. 나가며

2011~2020년 기간의 노인 경제활동 및 경제 수준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노인의 일자리 질-종사상지위, 일자리 만족도, 임금 수준 등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가구 내에서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노인의 종사상지위는 상용 근로자 비율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2011년 3.3% → 2020년 18.4%), 임시·일용근로자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2011년 18.7% → 2020년 36.4%) 노인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노인의 경제 수준 향상은 노인집단의 특성 변화와 관련 있어 보인다. 전기노인은 후기노인에 비해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노인집단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양호한 통계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은 한국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한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인인구의 경제 수준 향상과 더불어 노인집단 내 다양성-경제 수준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볼 때 읍·면부 지역 거주,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독거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노인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더 세분화하거나 타기칭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전 국민이 아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것이므로 노인의 상대적 빈곤 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등 공적부조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연금 가입 연령이 지난 현재 노년층 대상의 소득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노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공헌 등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에는 노인의 직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시장과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2018).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64. 31-43.
 OECD data , <https://data.oecd.org/>에서 2021. 8. 12. 인출.

참고문헌

노인복지법, 법률 제17776호 (2020).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Economic Activity and Economic Status of Older Persons

Hwang, Namhu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economic activity and economic level of older persons over the past 10 year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From 2011 to 2020, the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y increased and the economic status improv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job quality of older persons – occupational status, job satisfaction, wage level, etc. – changed positively, and the economic status of older persons within the household increased. Nevertheless, given that the poverty rate of older persons in Korea is still high, continuous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economic status of older pers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olicy interest in the future in that supporting older persons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can not only improve the income level but also satisfy their desire to participate in society.